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2020. 12

이상우

■ 목차

요약 / 1

I. 서론 / 2

II.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 4

1. 초고령사회 변화 / 4

2. 포용적 성장 정책 / 6

III.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 14

1. 사회 참여 / 14

2. 소비자 보호 / 17

3. 고령층 맞춤 지원 / 20

4. 노후관리 / 22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 23

6. 산·학 연계와 협업 / 33

7. 한·일 비교 / 37

IV. 결론 / 39

| 참고문헌 | / 43

■ 표 차례

- 〈표 I-1〉 일본 노년학회·일본노년의학회 고령사회 정의(안) / 3
- 〈표 II-1〉 보험업시행규칙(제4조) 개정 전·후 / 9
- 〈표 II-2〉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산업 포용력 확대 규제 완화 비교 / 13
- 〈표 III-1〉 일본 보험회사의 부모 간병비용보장 보험상품 개발 사례 / 16
- 〈표 III-2〉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알기 쉬운 정보 제공 기본방향 / 17
- 〈표 III-3〉 메이지야스다생명 고령 계약자 계약 후 관리서비스 / 18
- 〈표 III-4〉 니혼생명의 고령 계약자 관리서비스 / 19
- 〈표 III-5〉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한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교육 활동 사례 / 19
- 〈표 III-6〉 니혼생명 고령 계약자 가족대행 서비스(Gran Age Star) 주요 내용 / 20
- 〈표 III-7〉 주요 회사의 토티형 연금상품 비교 / 23
- 〈표 III-8〉 생명보험회사의 건강증진형보험 현황 / 24
- 〈표 III-9〉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 현황 / 28
- 〈표 III-1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치매보험 개발 주요 현황 / 31
- 〈표 III-1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치매예방 및 치매 사후관리서비스 / 32
- 〈표 III-12〉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제공 간병 부가서비스 종류 / 33
- 〈표 III-13〉 일본 정부 Financial Gerontology(F·G) 정책 경과 / 33
- 〈표 III-14〉 금융회사의 금융노년학 활용 현황 / 34
- 〈표 III-15〉 보험회사의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 추진 현황 / 36
- 〈표 III-16〉 한국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포용력 확대 사례 비교 / 38

■ 그림 차례

〈그림 Ⅲ-1〉 니혼생명의 보육시설 소개 서비스 사례 / 15

〈그림 Ⅲ-2〉 톤틴형 연금상품 구조 / 23

〈그림 Ⅲ-3〉 니혼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미지 / 30

요약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 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토티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 한계에 직면, 인구구조 변화와 포용국가 추진, 4차산업 발전 등에 따라 위험관리기관으로서 역할 변화와 새로운 기회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사회·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¹⁾
 - 금융위원회(2018)도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발표하였음²⁾

-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최근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가장 유사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와 민영보험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 생명보험업계가 포용력 확대를 통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생명보험업계 역할’을 발표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³⁾
 - 구체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종전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혁신기술을 활용,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Prevention), 직·간접적인 사회 참여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용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임

1) 청와대 브리핑(2018. 9. 6)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5),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3) 日本生命保険協会(2020)

- 본 보고서는 일본 생명보험업계가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역할 확대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지 주요 정책과 대응 사례를 조사함
 - 조사 목적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생명보험산업이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재 위치를 가늠하고 동기부여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대상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역할 변화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임
 - 주요 내용은 제2장에서 일본이 역할 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인 초고령사회 변화, 최근 정부의 포용·혁신·성장 정책과 보험규제 완화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일본 생명보험회사 최근 사례와 한·일 간 비교하며, 제4장에서 결론을 맺음
- 본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일본 학회가 제안한 정의 기준을 인용함
 - 일본노년학회·일본노년의학회(2017)는 기존 초고령사회 정의를 <표 I-1>과 같이 초고령화사회와 초고령사회로 구분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음
 -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28%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령인구가 15.7%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 2035년 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⁴⁾

〈표 I-1〉 일본 노년학회·일본노년의학회 고령사회 정의(안)

65세 이상 인구 비중	고령사회 구분명
7~14%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5~21%	고령사회(Aged society)
21~28%	초고령화사회(Super-aging society)
28% 초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자료: 日本老年学会·日本老年医学会(2017)

4) 통계청(2020. 9)

II.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1. 초고령사회 변화⁵⁾

〈장수화〉

- 평균수명과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수화에 따라 과거보다 노후생활 기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음
 - 일본은 남(녀) 평균 노후기간이 1920년 1(5)년에서 1961년 12(16)년, 2017년 16(24)년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인구 감소와 다사사회〉

-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전후 베이비붐 영향으로 다사사회(多死社會)가 도래하고 있음
 - 생산인구는 1995년 8,726만 명 정점에서 2065년 4,529만 명으로 감소, 연간 사망자 수는 2000년까지 100만 명 이내에서 2040년 약 170만 명으로 전망됨

〈가구 변화〉

- 고령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령독신가구와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3대(代) 가구 비중이 감소함
 - 고령가구가 1990년 26.9%에서 2018년 48.9%, 고령독신가구가 1990년 14.9%에서 2018년 27.4%, 부부가구가 1990년 21.4%에서 2018년 32.3%로 크게 증가함

5) 日本生命保險協會(2020)을 기초로 작성함

〈질병구조 변화〉

- 질병구조가 종전의 감염증 중심에서 암·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생활습관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시대별 주요 사망원인은 1947년 1위 결핵, 2위 폐렴, 3위 뇌졸중, 1961년 1위 뇌졸중, 2위 암, 3위 심장병 2018년 1위 암, 2위 심장병, 3위 뇌졸중임

〈치매 인구 급증〉

-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 3.5명 중에 1명이 치매가 발생하고, 특히 75세 이후 고령자의 치매유병률이 급증할 전망이다
 - 일본의 치매(경증 포함) 인구는 2012년 462만 명(65세 이상 치매 비중 15%)에서 2020년 631만 명, 2030년 830만 명, 2050년 1천만 명(27.7%)을 상회할 전망이다
 - 치매로 인한 경제적 비용(입원·간병비·가족 간병비)이 2015년 15조 엔에서 2030년 21.1조 엔, 2040년 22.8조 엔, 2060년 24.3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술 발전〉

- 건강검진의 보급, 고액 첨단 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입원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제활동과 중증치료의 병행이 가능해짐
 - 선진의료비⁶⁾ 환자 수가 2014년 2.8만 명에서 2018년 3.9만 명으로 증가, 암 5년 생존율이 1993년(진단 시기) 53.2%에서 2008년 62.1%로 증가, 연간 평균입원 일수가 1984년 45.5일에서 2017년 30.6일로 감소함

〈기술 혁신〉

- 정부는 IoT,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혁신사회 즉, Society5.0⁷⁾ 건설을 위한 성장전략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6)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전제로 정부가 정한 신 의료 기술(양성자 치료, 중립자선 치료 포함)을 이용하는 의료행위이며,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7) 농경·공업·정보사회 다음의 사회이며,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의미함

- 다양한 4차산업 기술이 산업과 정부·기업·개인에 적용되어 경제 문제와 사회적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개인 니즈의 다양성 확대〉

- 전통적 가족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개인의 다양한 선택이 존중되는 등 자기 주도적 삶을 선택하는 사회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음
 - 혼인과 비혼 또는 결혼과 이혼, 출산·육아와 무자녀, 가족 동거와 독신, 취직과 프리랜서, 정규와 비정규직, 건강과 간병, 퇴직과 재취업, 소득과 자산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생활 양식과 소비 니즈가 발생함

2. 포용적 성장 정책

가. 정부의 정책

〈종합 정책〉

-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와 혁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반 강화 등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1억총활약플랜(2016년)⁸⁾을 수립함
 - 민·관데이터 통합·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데이터 활용 기본법을 제정(2016년)함
 - 100세 시대 구상회의(2017년)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의 ‘100세 시대 삶 모델’ 구축과 전 세대(世代) 사회보장의 형평성 강화를 촉구함
 - 미래투자전략(2017년)⁹⁾에서 4차산업 기반과 민·관의 협력에 의한 ‘건강수명 연장’, ‘FinTech’ 등을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
 - 차세대의료 기반법 제정(2017년): 익명가공 정보 활용과 사업자 허용 관련 법률임

8) 남녀노소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목표를 제시함

9) 2013년부터 매년 수립한 ‘일본재흥전략’의 변경된 명칭임

- 『데이터 활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 라인(2017)』을 공표함
- 미래투자전략(2018년)에서 Society5.0 건설을 목표로 4차산업 기반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함
-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정비, 과감한 규제·제도 개혁, ‘산·관(産·官) 협의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의료·간병·연금제도 개혁, 치매대책 등임

〈금융정책〉

- 일본 금융당국은 인구고령화 정책과 미래투자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에 동참을 재촉함
 - 금융청(2018)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본방향’¹⁰⁾ 발표함
 - 금융심의회¹¹⁾가 2019년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산형성·관리 최종보고서¹²⁾」를 발표하고 금융청에 개편(안)을 제안함¹³⁾
- 동 보고서는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목표, 기본 인식, 전략목표, 금융청·금융회사·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전략과제 등을 제시함
 - 정책목표는 고령사회·장수사회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 적절한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 동 보고서에는 ‘100세 시대 자산 활용에 대한 국민 계몽’,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의 시각화¹⁴⁾’, ‘최선의 고객 이익 중심의 업무 원칙¹⁵⁾’ 등의 정책을 통한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대책 마련을 금융업계에 재촉함

10)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금융위원회(2020. 8. 31)가 발표함

11) 금융청 설치법에 따라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청장관의 조사·심의·자문기구임

12) 金融審議會(2019. 6)

13) 건강수명의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자조적(自助的)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14) 시각화 정책은 토요타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문제점을 보이게 하라(Visual Management)’라는 경영혁신 기법이고,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정책 추진 수단으로 활용함

15) 顧客本位の業務運営に関する原則(Principles of Fiduciary Duty)

나. 보험산업의 정책

〈조혈모세포 보장 허용〉

- 금융청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자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법규 개정을 통하여 2005년 3월부터 허용함
 - 일본에서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본인의 의료비 보장은 민영보험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기증자 의료비 보장은 그 동안 민영보험상품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환자가족으로부터 공익적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금융청은 <표 II-1>과 같이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제3보험 종류의 범위에 기증자의 골수 제공 시술 행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육 사업 허용〉

-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보험업법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회사의 보육시설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
 - 저출산으로 연평균 약 25만 명 어린이 보육시설 대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보험회사의 보육사업 허용이 제기되었음
 - 개정 법률을 반영한 보험업법시행규칙¹⁶⁾은 보험회사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소 등(아동복지법상)을 허용함

〈불임치료보험 상품 개발 허용〉

- <표 II-1>과 같이 2016년에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험회사의 불임치료보험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짐
 - 일본에서 공적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치료인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의 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영보험상품으로 개발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2016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지급사유에 ‘불임치료가 요구되는 신체 상태(제4조 제2항)’를 신설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

16)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6의 2

〈표 II-1〉 보험업시행규칙(제4조) 개정 전·후

개정 전(2005년 3월)	개정 후(2005년 4월)
제4조(질병 등의 사유) 법제3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규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4조(질병 등의 사유) 법제3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규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신설) 불임치료가 요구되는 신체 상태(2016년) 4. (신설) 골수 제공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신체 상태

〈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일본 금융당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알기 쉬운 정보 제공과 보험모집 시 고령자 보호를 보험회사에 요구함
 - 금융심의회는 보험상품·서비스 제공 시 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소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2012년에 권고함¹⁷⁾
 - 생명보험협회는 '보고·읽고·알기 쉬운 문서작성 기준'을 2013년에 마련함
 - 금융청은 보험회사 사내규정에 고령자를 정의하고, 고령자 신체·인지능력 특성에 따라 모집 방법 마련을 명시하는 등 고령자 보호 규정을 2014년에 마련함¹⁸⁾
 - 또한, 금융심의회는 개인별 재무정보 제공의 시각화 활용을 권고함¹⁹⁾
 - 생명보험협회는 가입 시·계약유지 시·청구 사전준비·청구 시 대응 등 단계별 보호 사항을 제시한 '고령자 생명보험서비스 가이드라인'을 2014년 6월에 마련함

〈건강관련업무〉

- 동 업무²⁰⁾는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분류되어 자회사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음
 - 감독지침 개정 시(2012)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에 건강·의료·간병 컨설팅 업무

17) 金融審議會(2012. 11)

18) 보험회사 감독지침(이하, '감독지침') II-4-4-1-1(4)

19) 金融審議會(2019. 6)

20)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업은 보험업법상(『보험업법』 제98조 관련) 본체 업무로서 명시하지 않지만, 자회사의 금융관련업무 범위로서 '건강·복지, 의료 조사 및 분석, 조업 업무 등(『보험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제9호)', '건강·의료·간병 등 복지에 관한 컨설팅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감독지침 III-2-2-1)을 명시하고 있음

가 신설되어 자회사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됨

- 다만, 열거된 업무가 아니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청 장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회사 본체에서 기타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함²¹⁾
- 금융청(2017)이 니혼(日本)생명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를 심사하여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허용한 바 있으며,²²⁾ 정부 정책에 따라 허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 본체, 보험회사의 자회사, 자회사가 아닌 전문회사에게 아웃소싱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건강 및 복지 관련업무는 건강·의료·간병 등 복지에 관한 컨설팅, 건강·복지 조사연구,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지도원 및 의료진에 의한 콜센터 상담 업무, 노인홈, 고령자 방문 간호, 고령자 급식, 어린이 육아시설, 간병 재활기관(옥내 스포츠 시설 포함), 기타 관련 업무 등임²³⁾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인 제공〉

- 보험관련 범구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다만, 현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사례를 통하여 금융청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일반인 제공을 허용한 것으로 추정됨
- SOMPO히마와리(Himawari)생명²⁴⁾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 'LinkX'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건강증진 산업 촉진〉

- 일본 정부는 건강수명 연장을 사회적 과제이자 동시에 성장 기회로 인식하여 전 국

21) 石田満(2019), p. 170, 감독지침 III-2-1-13-1(「기타 부수업무」의 취급) 관련임

22) 금융위원회(2019. 7)

23)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제9호, 감독지침 III-2-2-1(2)⑤ 등임

24) SOMPOひまわり生命 News Release(2018. 3. 29)

민 건강수명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건강일본21(2000)’, 생애 상병기간 (평균수명-건강수명) 개선을 위하여 ‘건강일본21(2016)’ 운동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건강경영제도 시행,²⁵⁾ 비대면진료 실용화 등의 산업을 촉진하는 미래투자전략(2017, 2018)을 추진함
- 건강경영제도는 기업이 경영적 관점에서 종업원 건강상태 유지와 개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제를 실시, 우량기업에게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험수요를 촉진하고 있음
 - 우량기업에게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 시 가점, 장려금·보조금 우대, 대출 및 금리,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되어 경영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음

〈치매 보장 활성화〉

- 일본 정부는 치매 문제를 사회적 과제이자 동시에 성장 기회로 인식하여 치매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新)오렌지플랜(2015, 2017; 치매대책추진종합전략)²⁶⁾을 수립하고, 건강데이터 등의 혁신기술과 접목하는 서비스 개발과 민·관·산·학의 참여를 촉진하는 미래투자전략(2018)을 수립함
 - 또한, 정부의 인지증시책추진대강(2019. 6)에서 민영보험 활성화를 기대함

〈건강데이터 활용〉

- 일본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본판 데이터3법을 제·개정하였음
 -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 ICT 기술·인프라와 의료정보의 융합전략을 제시하고, 의료·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직장 건강보험조합의 가입자 건강보건 지도가 2015년부터 의무화되어 동 수요가 확산됨

25) 건강경영 우수 기업에게 건강보험 재정 지원, 공공입찰 가점제, 대출 우선·금리 인하 등을 제공함

26) 지역포괄케어, 치매예방, 치매 사회교육 등 치매환자 의사를 존중한 사회적 모델을 제시함

- 산업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익명가공 정보 활용 규정을 신설함
- 민·관 데이터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2016)』, 보건 의료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차세대의료기기반법(2017)』을 각각 제정함
- 2017년 미래투자전략에 따라 산재해 있는 건강·의료·간병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2020년부터 가동함

〈고객데이터 활용〉

- 일본은 데이터 관련법 후속 조치로 금융 관련법을 2019년에 개정하여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본체의 부수업무로서 신설함
 - 보험업법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취득·보유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음²⁷⁾
 - 다만, 보험회사는 익명가공처리한 고객 정보를 건강 개선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제3자(건강관리 전문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 제공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금융노년학 연계〉

- 일본 정부는 금융노년학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경제 및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부는 고령층 금융자산이 불법금융 및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노년학에 기반한 고령자 노후 경제시스템 추진정책인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2018년에 발표함
 - 금융당국은 고령층 금융활동 보호, 고령자 의사를 반영하면서 안전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노년학을 활용한 금융회사의 대응 체계 마련 정책(2019, 2020)을 발표함

27) 개정(2019) 보험업법 제98조 1항 관련임

〈표 II-2〉 한국과 일본의 생명보험산업 포용력 확대 규제 완화 비교

구분	일본	한국
골수기증자보장 개발	질병 사유에 골수 제공 신체 상태를 신설(2005년 법 시행규칙 개정)	명시적 근거 없음
보육시설 운영업	자회사 업무 범위에 보육시설 업무 신설(2014년 법 시행규칙 개정)	명시적 근거 없음
불임치료보험 개발	질병 사유에 불임치료가 요구되는 신체 상태 신설(2016년 법 시행규칙 개정)	명시적 근거 없음
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정부 문서 시각화 정책 추진(2015) - 알기 쉬운 서면계약 정보 제공 자율 기준 마련(2016. 6) - 금융청 시각화 정책 추진(2019. 6)	- 보험약관 개선 추진(2019. 10)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제공 추진(2020. 9)
고령층 소비자 보호	협회 자율규정 마련(2014)	협회 자율규정 마련(2017)
건강관리업 영위 근거	- 법상 보험회사 부수업무 적용 모호 - 법상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 건강증진컨설팅업 신설(2012) - 단, 금융청이 종합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적용 가능(III-2-1-13-1)	- 법상 보험회사 부수업무 적용 모호 - 금융위 신고 시 부수업무로 허용 방침(2019. 7) - 금융위 승인 시 자회사 편입 허용 시행(2019. 12)²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험회사 본체(금융청 유권해석), 법에 따라 자회사·외부 전문회사에서 위탁 제공	보험회사 본체(금융위 유권해석), 법에 따라 자회사·외부 전문회사에서 위탁 제공 가능
건강증진 산업 촉진	건강일본21 정책에서 인센티브 명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건강증진형보험 지침	금융당국이 법규에 따라 판단	가이드라인 제정(2017)
치매보장 활성화 근거	인지증시책추진대강(2019.6)에서 민영보험 활성화 기대	치매 국가책임제(2017)에서 공·사보험 역할 분담 비명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법 제정	- 일본판 데이터 3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5) - 민관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2016), 차세대의료기기법(2017)	데이터 3법 제정(2020)
고객 데이터 활용 근거(제3자에게 제공)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 부수업무 신설(2019)	검토 중
금융노년학 활용 근거	- 고령사회 대책 대강(2018)에서 명시 - 금융청 금융정책(2019, 2020)에서 명시	검토 중

28) 금융위원회(2019. 7), (2019. 12)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1. 사회 참여

가.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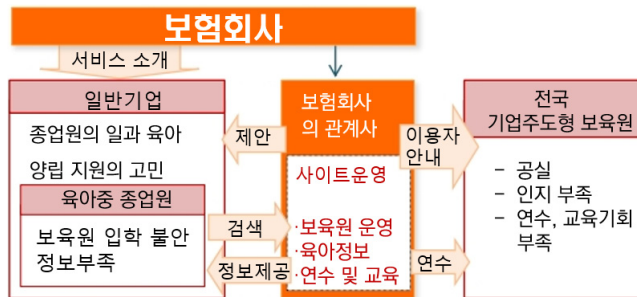
- 다이이치(第一)생명은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단체에 보험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생존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의사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적십자단체 등 지정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임
 - 동 제도는 종신보험 부가서비스로 보험계약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가족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부하거나 또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함

- 일본 푸르덴셜생명은 신체장기 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3보험 상품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이식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동 회사는 보험약관의 보험금부 지급사유에 조혈모세포 이식 의료비를 추가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추가 부담 없이 기존·신규 가입자에게 관련 보장을 제공함
 -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 주계약 또는 입원특약의 질병 치료비 지급사유에 조혈모세포 채취기술, 입원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장함
 - 주요 보장은 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 채취기술을 받은 경우 하루당 입원급부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술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임
 -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7개 보험회사가 주계약 또는 특약형태로 판매 중임

나. 일·육아 양립 개선 지원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시설 대기아동 문제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유치하거나 보육시설을 안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2011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유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9년 기준으로 총 21개 보육소에 1,615명을 수용함)
 - 니혼생명은 규제 완화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그림 III-1>과 같이 관계사인 니치이학관의 어린이집 등 전국의 보육시설을 소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대상은 종업원 복지제도 일환으로 기업주도형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과 보육시설 대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 임직원임
 - 니치이학관은 2018년말 기준으로 총 69개소를 운영 중임
 - 최근 출산·불임치료보험을 판매하는 등 저출산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림 III-1> 니혼생명의 보육시설 소개 서비스 사례



자료: 日本生命(2019)

다. 일·간병 양립 개선 지원

- 최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종업원이 ‘간병퇴직’ 문제²⁹⁾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의 임직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단체상품으로

29) 인구 고령화에 따라 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이 연평균 약 10만 명, 퇴직에 따른 인력 유출로 경제적 손실이 연간 6,500억 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經濟産業省 2018)

개발하고, <표 III-1>과 같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

- SOMPO재팬은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업형 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하는 특약상품으로 2015년에 처음 개발함
 - 동 상품은 기업이 이미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신규로 가입할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임직원에게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보장 내용은 부모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가 최대 300만 엔의 일시금을 간병비용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니혼생명은 2020년에 처음으로 단독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주요 특징은 최대 30%까지 단체할인 적용, 보험료 기업 일부 지원 설계, 다양한 간병서비스 및 입주시설 등의 소개 및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³⁰⁾

<표 III-1> 일본 보험회사의 부모 간병비용보장 보험상품 개발 사례

회사명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요건	보험가입금액
니혼생명	종업원 부모님 (16~85세, 90세 가능)	간병보험 2등급 이상 또는 180일간 지속	100~500만 엔
SOMPO재팬	종업원 부모님 (40~79세, 89세 가능)	간병보험 2등급 이상 또는 90일간 지속	100~300만 엔
토쿄해상 니치도화재	종업원 부모님 (40~84세, 89세 가능)	간병보험 3등급 이상	100~300만 엔
아이오이손보	종업원 부모님 (40~84세, 89세 가능)	간병보험 3등급 이상 또는 90일간 지속	50~500만 엔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상동	상동	상동

자료: 日本経済新聞(2016. 7. 3), “団体保険で親の介護に一時金”; 이상우(2019)에서 재인용함

30) 日本生命 News Release(2020. 9. 8)

2. 소비자 보호

가. 고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가 필요 시 최적의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해 <표 III-2>와 같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음
- 동 협회는 2013년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보험회사의 기준 준수 여부와 실태를 평가하고 있음

<표 III-2>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알기 쉬운 정보 제공 기본방향

-
- 심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보장하는 대상 니즈와 예상되는 주요 고객층 명시
 - 리스크 정보, 불이익 정보 등의 강조
 - 복합형 보험상품의 경우 기능별 설명 충실화
 - 다른 유사 상품과의 비교 기능 향상(상품 특성, 비용 등)
 - 각종 문서 및 문자 수를 줄이고 알기 쉬운 디자인 채택
 - 직원 PC 등에 의한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 충실
 - 상품의 현재가치나 미래가치의 비주얼화
 - 고령자 전용 콜센터 설치하여 정중하고 알기 쉽게 설명
-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2020)

나. 고령자 보호 전문 서비스 제공(무료)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고령 계약자의 계약 관리·유지상의 심리적 불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III-3>과 같이 3가지의 고령 계약자 가입 후 계약관리서비스³¹⁾를 제공하고 있음

31) 일본에서는 'After Follow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함

〈표 Ⅲ-3〉 메이지야스다생명 고령 계약자 계약 후 관리서비스

서비스명	시행년	주요 서비스 내용
MY안심 가족등록제도	2014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확인을 위하여 해피콜을 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가족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률은 약 84.6%임(2020년 3월)
MY장수 계약점검제도	2015	보험계약자가 77세 이후 약 10년 단위로 보험금 청구, 연락처·수익자 변경 유무 확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우편을 보내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전화(2차), 보험모집인(3차)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서비스, 90세 이상 고객 이용률은 약 99.5%임(2020년)
MY어시스트+ 제도	2018	시력·청력 저하로 서류 작성 및 서명이 곤란한 고령 계약자를 대신하여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보험계약 서류 대필, 정보 등록하거나 전문 콜센터·전담 데스크가 전화로 계약 확인 및 등록 등을 지원, 이용자 수는 총 1,042명임(2019년)

자료: 明治安田生命(2019); 明治安田生命 News Release(2020. 6. 30)

- ‘MY안심 가족등록제도(2014)’는 고령 계약자가 편안하고, 안심하며 계약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안내를 등록된 가족에게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고령 계약자의 약 84.6%가 가입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등록된 가족이 계약내용의 조회나 관련 서류 송부를 의뢰할 수 있으나 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의 청구나 해약 등을 할 수 없음
- ‘MY장수 계약점검제도(2015)’와 ‘MY어시스트+제도(2018)’는 각각 고령 계약자의 99.5%, 총 1,04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Ⅲ-3〉과 같음
-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고령 계약자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계약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고령 계약자를 계약 기간 중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표 Ⅲ-4〉와 같이 계약 단계별로 고령 친화적이고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 시 가족동반, 고령 고객 전문 담당자에 의한 계약 절차 진행, 계약 기간 중 가족에게 계약정보 안내, 보험금 청구 시에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안내, 계약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 등 청구 절차 안내 및 상담 등임

〈표 III-4〉 니혼생명의 고령 계약자 관리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내용
계약 시	가족 동반	고령 계약자 가족 동반
	계약 안내	전문 담당자에 의한 청약 확인, 가입 절차와 안내 진행
계약 기간 중	계약정보 가족 안내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하기 위한 '고령 고객 상담전화' 실시, 계약 유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된 가족에게 계약정보 안내
보험금 청구 시	지정대리청구인	청구권자가 보험금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을 통하여 청구하고 수령
계약자 사망 시	가족 안심 보고	고령 계약자 사망 시 필요한 계약 절차·위로금 등의 유가족 지원 전화상담 등을 제공

자료: 日本生命(2019)

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개선 지원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해 〈표 III-5〉와 같이 산업차원에서 직장인·학생 등 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특히, 일본 문화과학성은 2016년에 동 협회가 제안한 '학교 교육에서 보험 교육 기회 강화 제안서'를 수용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반영함
 - 주요 내용은 동 학습지도요령 사회보장 학습 부분에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의한 협력 체계가 합리적' 등을 명시함

〈표 III-5〉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한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교육 활동 사례

구분	교육 목적	교육 사례
직장인 대상	기업과 협력에 의한 회사 안에서 종업원 교육기회 확대	• 회사 특성별 각종 정기세미나 개최 • 라이프 플래너의 식당 등에 출입 허용(특정일) • 정보제공 책자 기업을 통한 배포 등
학생 대상	중·고등학교에서 정부의 신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한 사회보장교육 수업을 위한 지원	• 부교재 작성·제공 • 강사 파견 • 교직원 대상 세미나 등, 교육기회 제공 등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2020)를 요약함

3. 고령층 맞춤 지원

가. 고령자 편의성 선진화

■ 니혼생명은 고령 계약자 전문 서비스(Gran Age Star)를 2019년부터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 ‘Gran Age Star’는 ‘Gran Age 프로젝트(시니어 상품·서비스 허브)³²⁾’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100세 시대에 홀로 사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 계약자의 가족대행 유료 서비스임
- 동 서비스는 니혼생명과 사전에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NPO LISS System이 조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서비스 내용은 <표 Ⅲ-6>과 같이 시설 입주 시 신원보증 서비스, 입·퇴원·통원 시 생활지원 서비스, 임의 후견 서비스, 고령자 전용 여행 안내 등 상담 창구 서비스, 사망 후 장례·유품 정리 등 사후 서비스 등임

<표 Ⅲ-6> 니혼생명 고령 계약자 가족대행 서비스(Gran Age Star) 주요 내용

가족 대행 생전 서비스				사후 서비스
신원보증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임의후견 서비스	생활지원 창구	사후 행정 서비스
입원·시설 입주 신원보증·인수 등	통원·퇴원 시 동반, 물품 이동	재산관리, 생활·요양간호 등	고령자 전용 여행 안내, 보호 서비스 우대 등	장례·납골·유품 정리 서비스 등

자료: 日本生命(2019)

32) 니혼생명, 동경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IOG), 닛세이기초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노년학(Gerontology)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 고립, 독신 생활, 치매·건강상태, 사후 문제 등의 노후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고령자 지원제도임

나. 선진형 지불제도 제공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고령 계약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생명보험금 제3자 보험금 청구대행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³³⁾
 - 일본에서는 고령자 증가, 독거노인과 치매·암환자 증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하거나 가족이 청구를 할 경우,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15개사)는 청구 대행 회사인 ‘(재단법인)あなたの医療(당신의 의료)’, 가나가와현(縣)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나가와 지역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제3자 보험금 청구 대행 시범 사업을 실시함
 - 실시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선진 의료급부금 직접지불 서비스’를 201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선진의료보장상품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중립자·양성자선 치료 등을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지 않고 가입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서비스임
 - 동 회사는 의료비 직접 지불을 위해 중립자·양성자선 치료병원 22개소와 협약을 체결, 향후 지속적으로 협약 병원과 서비스 제공 질병을 확대할 방침임³⁴⁾
 - 동 서비스는 스미토모, 아사히, Fukokushinrai, 소니, 오릭스, Lifenet, SOMPO 히마와리, 미츠이스미토모, AFLAC 등의 생명보험회사로 제공이 확산되고 있음

33) 一般財団法人あなたの医療 News Release(2020. 1. 21)

34) 明治安田生命 News Release(2020. 3. 27)

4. 노후관리

가. 라이프플랜과 자금계획(Life Plan·Money Plan) 설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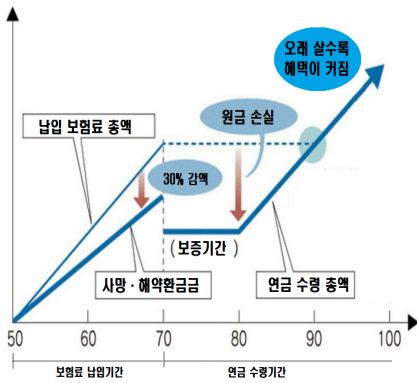
- 니혼생명은 FinTech를 활용한 자산형성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계부 기능과 연계한 노후자금 예상 수령액 App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 SOMPO히마와리생명(2019), 메이지야스다생명(2020), 스미토모(住友)생명보험(2020), 후코쿠(富國)생명(2020)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다만, 노후소득 종합정보 제공 측면에서 일본은 공적연금과 연계되지 않고 사적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공·사연금이 연계된 우리나라의 공·사연계형 연금포털과 제공 정보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음

나. 장수 상품 제공(토티형 연금)

- 니혼생명이 'Gran Age(장수생존보험)'을 토티형 연금³⁵⁾으로 개발하여 2016년 10월에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생명보험업계로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 동 상품은 <그림 III-2>와 같이 50세부터 70세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70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지만,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억제하여 남은 금액을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함
 - 즉,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7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연금 개시 후 보증기간(5년) 경과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연금 수령액이 납입 총액을 상회하는 손익분기(BEP) 연령은 <표 III-7>과 같이 남성 90세이고, 그 이상 생존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납입 총액보다 많아져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환급률)이 152.5%로 설계됨
 - 동 회사는 2019년 4월 말까지 2년 10개월 동안 동 상품을 6.4만 건을 판매하였음

35) 토티연금은 연금 수령 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의 잔여 보험료를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본에서는 소액의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변형된 형태로 개발함

〈그림 III-2〉 토티형 연금상품 구조



〈표 III-7〉 주요 회사의 토티형 연금상품 비교

구분	니혼생명	다이이치	타이요
상품명	그랑 에이지	장수 이야기	100세 시대 연금
판매시기	2016. 4	2017. 3	2017. 10
가입연령	50~87세	50~80세	50~85세
월보험료	50,790엔	40,800엔	45,309엔
개시연령	60~90세	60~90세	60~90세
BEP	90세	89세	88세
연금보증	5년간	10년간	5년간
환급률 ²⁾	152.5%	163.0%	171.0%

주: 1) 60세 남성 가입, 연금수급 개시 70세 기준임

2) 100세 생존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임

자료: Money&Investment(2017. 10. 29); 마네펠트(2017.10.20.)

■ 최근에는 다이이치생명, 타이요(太陽)생명, T&D파이낸셜생명, 미츠이스미토모생명 등이 토티연금 원리를 응용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의 '장수 이야기'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타이요생명보험의 '100세 시대 연금'은 간병상태가 2등급 이상일 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통합 상품(종신생활 간병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미츠이스미토모생명은 2018년에 사망보장을 축소하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고,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토티형 지급 특약을 개발함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가. 건강증진보험 및 서비스 제공

■ 일본에서 건강증진형보험이 2016년에 처음 개발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표 III-8〉과 같이 네오퍼스트생명(2016), 도쿄해상안심생명(2017), 다이이치생명(2018), SOMPO재팬히마와리생명(2018), AFLAC(2018), 스미토모(友友)생명(2018), 메이지야스다생명(2019) 등이 대표적인 판매 사례임

〈표 III-8〉 생명보험회사의 건강증진형보험 현황

회사명	상품명	시기	특징	할인 혜택
네오퍼스트생명	네오de 건강L	2016	계약 시, 자동갱신 시(3년) 제출한 검진결과를 기초로 실제 건강연령 정보를 적용하여 보험료 결정	보험료 변동
토쿄해상안심생명	아르쿠 (겔기)보험	2017	웨어러블 단말기에 기록된 건강관리 활동을 평가하여 1일 8천보 보행 시 업계 처음으로 보험료 캐시백 제공, 축하금 지급	캐시백 제공(보험료 1~2개월분)
다이어치생명	저스트 검진할	2018	계약 시 제출한 검진결과에 따라 검진제출 기본할인, 검진우량할인, 7개 보험상품을 대상	10~20% 할인
SOMPO 히마와리생명	LinkX 가족 보호 등	2018	계약 시 제출한 검진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요율 적용, 계약 중 건강 개선 시 요율 변경 가능	33% 할인(증), 캐시백
스미토모생명	Vitality	2018	계약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행 수, 심박동수 등 App을 통해 건강활동을 평가하여 매년 보험료 조정 (월 864엔 이용료)	최대 30% 할인
AFLAC	건강응원 의료보험	2018	건강연령을 평가하여 매년 캐시백 현금 지급, 인터넷 전용상품, 건강관리 App 제공	건강축하금 40세(남성) 기준, 연간 보험료의 약 8.6% 환급
메이지야스다 생명	Best Style 건강 Cashback	2019	건강상태를 3단계로 평가하여 매년 캐시백 적립, 매년 건강 개선 보고서 제공	캐시백 제공(최대 보험료 1개월분)

자료: 각 회사별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1) 건강증진보험 특약형(유상)

■ 스미토모생명은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로서 남아공 Discovery가 개발한 Vitality를 처음 도입하여 2018년 7월부터 출시함

○ Vitality는 의료보험 등에 부대하는 특약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월 864엔의 이용료 부가, 가입 시 초회 보험료 15% 할인 혜택 제공, 건강상태 및 운동량 등 평가 후 개선 시 보험료 할인 및 특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건강상태를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여 최고 등급의 경우 보험료가 매년 2% 할

- 인(누적 30% 할인 한도)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험료가 2% 인상됨
- 매주 운동 목표를 달성 시 식·음료 상품권 등의 회원 특전³⁶⁾이 제공됨
- 건강 평가는 App 또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한 보행수, BMI 등 수치, 건강검진 결과, 피트니스 등 스포츠 활동 참가 횟수 등의 데이터에 기초하며,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 관리 및 활동 데이터를 Vitality 전용 web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스미토모생명은 Vitality가 건강 개선과 실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³⁷⁾

- 판매 1년 동안 가입자 15,702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인센티브 제공에 의해 가입자 하루 평균 걸음수가 17% 증가하거나,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가입자의 48%가 10mmHg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말 Vitality 누적 계약 건수는 약 50만 건이며, 주력 보험상품의 Vitality 부대 비율은 약 60% 수준임

2) 건강증진보험 변형형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기존 보험상품(Best Style)³⁸⁾에 건강증진 서비스 특약을 결합한 변형형상품으로 'Best Style 건강 Cashback'을 2019년 2월부터 판매함

- 동 상품은 동 회사의 '모두의 건활(建活) 프로젝트(건강증진 운동)' 실천을 위한 상품으로 매년 가입자의 건강을 평가하여 3단계 등급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 1·0.5·0.1개월 분의 캐시백 적립과 건강진단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 건강 평가는 가입자가 매년 제출한 건강진단 검사항목³⁹⁾ 결과에 기초하며, 분석보고서는 검진결과 추이 확인, 건강연령 및 향후 입원 리스크 예측, 식단 및 운동 등 건강어드바이스, 질병리스크와 향후 캐시백 시뮬레이션을 제공함

36) 혈액검사권 무료·할인, 웨어러블 기기, 스포츠 회원, 용품 구입, 스타벅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16개 유명 브랜드와 협력을 체결, 향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37) 住友生命 News Release(2019. 9. 26); 住友生命 News Release(2019. 10. 21)

38) 동 상품은 주계약 보장이 없고 다양한 특약들을 조합할 수 있는 조합형 상품 프레임 구조임

39) 40세 이상의 경우 BMI, 혈압, 혈당, 혈액(간지방, 지질, 간대사) 등으로 향후 확대할 계획임

- SOMPO히마와리생명은 중장기 경영전략(2016~2022년)에 따라 종전 건강증진형 보험을 2018년에 브랜드(Insurhealth®)화하여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⁴⁰⁾
 - ‘Insurhealth®’는 보험 고유의 기능(Insurance)에 질병 예측·예방·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을 지원하는 기능(Healthcare)을 동 회사가 창조·합성한 단어로서 기존 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통합상품 브랜드임
 - 이를 위해 고객·비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LinkX)을 2016년 9월에 이미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보강을 추진 중임⁴¹⁾
 - 최근에는 생활습관에 대한 Q&A 분석을 통하여 13개 질병 리스크를 예측하고 연간 의료비를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2020년 8월부터 제공함
 - 현재 ‘Insurhealth®’ 상품으로 수입보장보험, 여성전용 암보험, 치매보험, 당뇨 질환자 전용 의료보험 등 6개 보험상품을 판매 중임
 - 유병자보험인 당뇨질환자 전용 의료보험(2019.12)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App을 통한 혈당관리 등을 장려하고 ‘건강☆챌린지!’ 제도를 통하여 중증화를 예방함
 - 동 제도는 건강 개선 시 매년 건강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건강 조건 충족 시 건강체 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고 기납입 보험료 일부를 환급함
- SOMPO히마와리생명은 인센티브 제공이 가입자 건강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 ‘건강☆챌린지!(2018. 4)’ 실시 후 건강 개선을 평가한 결과 가입자 중 약 90%, 800명 이상 가입자가 금연이나 건강상태(BMI, 혈압 등) 개선에 성공함⁴²⁾
 -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27,000엔의 건강챌린지 축하금을 받고, 1년간 지불하는 보험료가 평균 약 12,000엔 절감된 것으로 조사함

- SOMPO히마와리생명은 2025년부터 대부분의 개인보험상품에 건강증진 기능을 부

40) SOMPOひまわり生命(2020)

41) SOMPOひまわり生命 News Release(2018. 3. 29)

42) SOMPOひまわり生命 News Release(2020. 9. 30)

가하는 등 전면적 상품개편안을 2020년에 발표함⁴³⁾

- 건강증진보험 판매 비중(현재 25%) 확대 등 보험상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금·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개인보험상품 개발을 중지하고, 2025년까지 이를 건강증진형으로 전환·개발할 계획임

3) 건강증진 서비스 부가형(무상)

- AFLAC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용 건강증진형 보험인 ‘건강응원 의료보험’을 2018년 10월부터 판매함
 - 동 상품은 전자 보험증권 발행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매년 가입자의 건강연령을 평가하여 건강연령이 실제연령보다 1세 낮을 경우 Amazon 상품권 등을 캐시백 건강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임
 - 건강연령 평가는 가입자가 PC·스마트폰으로 매년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서에 기초하고, 부대서비스로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 App을 제공함
 - App에서 간단한 전문의(専門醫) 등의 상담 가능한 텍스트 의료상담 서비스, 전국 종합건강검진을 검색·비교·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4) 단체형 건강증진보험 개발

-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의 건강경영 니즈 확대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관련 단체보험상품 개발이 보험업계로 확대되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이 2017년 처음 판매한 이후 <표 III-9>과 같이 메이지야스다생명, Metlife, 니혼생명, 미츠이생명이 판매 중임
 - 동 상품은 기업이 종업원 복지제도 일환으로 가입하는 단체의료보험 등에 종업원 개인별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건강상담, 건강상태 분석, 건강경영 컨설팅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임

43) 日本経済新聞(2020. 10. 20), “生保に「健康増進型」の波・SOMPO系が全面転換”

- 정부의 건강경영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경영 우량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표 III-9〉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 현황

회사명	상품명	건강증진 주요 내용
다이이치생명	신의료보험(2017)	Walk&Link 서비스 DL KENPO 제공
	3대 질병지원보험(2019)	DL 건강경영 백업서비스 제공
메이지야스다생명	단체질병·의료·정기보험(2019)	건강지원 캐시백 특약
Metlife	단체의료보험(2019)	App 제공, 건강어시스터백 서비스 무료 제공
니혼생명	단체정기보험(2019)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Wellness-Star☆) 제공
미즈이생명	단체 정기보험(2019)	건강경영 간단 체크리스트&진단 리포트 제공

자료: 熊沢由弘(2020)를 기초로 작성함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개인보험에 부가하던 건강증진 서비스 특약을 기존 단체보험 상품과 결합한 번들형 기업상품으로 개발하여 2019년 4월부터 판매하고 있음
 - 현재 건강증진 서비스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단체보험은 3가지 종류가 있음
 - 동 특약은 종업원이 매년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건강 개선 시 캐시백 적립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건강경영 솔루션을 제공함
 - 필요한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 추천, 단체 건강검진 업무 대행, 검진결과 분석 및 대책 검토, 개선계획 수립, 개인·기업에게 건강분석 보고서 제공 등임
 - 또한, 종업원 건강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식사 칼로리 자동 계산, AI 건강상담을 위한 건강증진지원 App을 지원함

나. 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 일본 보험업계는 데이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련 서비스 개발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2018)는 건강·의료정보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니혼생명 헬스케어 사업(Wellness-Star)과 다이이치생명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음⁴⁴⁾
- 일본 헬스케어 산업 시장규모가 2025년 약 33조 엔으로 추정됨에 따라, 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진출이 보험업을 포함한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 니혼생명은 정부 발표에서 자사의 헬스케어 관련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⁴⁵⁾

- (단기) 건강증진 인센티브형 보험상품 보급·확대, (중기) 인수능력 개선 등에 의한 보험기능 확대, 새로운 질환·치료기법 보장 확대 등, (장기) 보험회사와 국민 간의 데이터 공유화를 통해 보험을 넘는 새로운 부가가치 등장
- (비전)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통하여 헬스케어 산업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 데이터 축적을 통해 보험의 선진화를 지향

■ 니혼생명의 'Wellness-Star'는 지역·직장 건강보험조합원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컨설팅 서비스 브랜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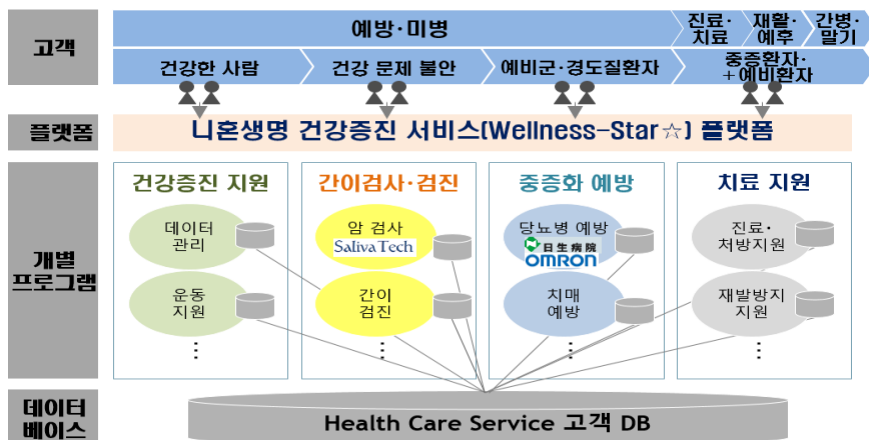
- 동 서비스는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장별 의료비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App를 통한 운동촉진 지원, (옵션) 특징인 기기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건강경영 업무 지원, 개인별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됨
- 동 개발에 노무라종합연구소, 닛세이기초연구소, Recruit Lifestyle, Nissay Information Technology(자회사) 등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함
- 동 회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림 III-3>과 같은 'Wellness-Star 플랫폼'을 2018년에 개발함
- 또한, 의료·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조합원 및 기업 종업원, 개인 고객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00만 명의 데이터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회사는 지속적인 데이터 및 서비스 콘텐츠 확충을 통하여 단체·기업 고객은

44) 経済産業省, ヘルスケアIT研究会(2018. 4); 金融審議会 金融制度スタディ・グループ(2018. 12)

45) 経済産業省, ヘルスケアIT研究会(2018. 4)

물론 보험계약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그림 III-3〉 니혼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미지



자료: 経済産業省, 헬스케어IT研究会(2018)

■ 'Wellness-Star 플랫폼'은 〈그림 III-3〉과 같이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매칭하여 제공하는 체계로 이루어짐

- 동 플랫폼은 빅데이터와 ICT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질병 예방·예측, 중증화 방지, 질병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하위에 다양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는 암 검사 및 당뇨병 예방 등 일부 건강관리서비스만 개발되어 있음
 -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일본생명병원, OMRON, MICN, FUJIFILM 등의 사업자와 연계하여 역할 분담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건강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2020년 7월부터 당뇨예방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등 본격적인 헬스케어 사업에 진입함

- 동 회사는 2018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 25개 단체에 소속된 약 1,000명 참여

자의 약 99.1%에서 평균 혈당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함⁴⁶⁾

- 이를 근거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유료(3개월간 1인당 약 7만 엔)로 전환함
- 서비스 내용은 위탁 병원이 IoT에 의한 24시간 혈당 모니터링 기기, 활동량 측정 기기, 간이혈액검사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혈당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건지도사가 상담 App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임
- 동 회사는 2년내 1만 명 이용자를 확보하고, 고혈압 등으로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1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주력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다. 치매예방과 간병 지원

- 일본의 치매보험은 타이요생명이 2016년 처음으로 판매한 이후 2018년 이후 경도 인지장애(MCI) 보장,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표 III-1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치매보험 개발 주요 현황

구분	메이지야스다 생명	스미토모생명	SOMPO재팬 히마와리생명	다이이치 생명	타이요 생명
상품명	認知症케어 MCI 플러스	認知症 PLUS	리크 크로스 認知症保險	간단고지 認知症保險	히마와리 認知症予防保險
개발시기	2020	2020	2018	2018	2016
상품특징	치매보장 특약	치매보장 특약	위험인수 완화형	치매보장 단독형	위험인수 완화형
보장내용	경도인지 장애일시금, 치매일시금, 사망보험금	경도인지장애일시금(치매일시금×10%), 치매일시금	경도인지 장애일시금, 치매일시금	치매보험금	치매진단보험금, 생존급부금

자료: 熊沢由弘(2019)을 최근 정보로 수정·보완함

- 최근 상품개발 특징은 중·고령자가 가입하기 쉽도록 계약자 고지 사항을 줄이거나 위험인수기준을 완화하고, MCI 보장, 치매 조기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장 내용과 서비스를 차별화함

46) 日本生命 News Release(2020. 7. 14)

- 〈표 Ⅲ-10〉과 같이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SOMPO재팬히마와리생명은 중증치매는 물론 경도인지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을 판매 중임
 - 다만, 경도인지장애보험의 경우 치매보험금의 5~10% 수준으로 제한함
- 스미토모생명이 처음으로 건강증진형 치매보험 특약상품을 2020년에 개발함
 - 동 상품은 〈표 Ⅲ-11〉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Vitality)과 가족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험계약자 편의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인지기능 감소 평가, 치매예방 앱, 대리청구 특약, 보험금 청구 방문 서비스, 간병 시설·기구 소개, 치매 상담, 성년후견인·가족신탁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표 Ⅲ-11〉 참조)

〈표 Ⅲ-11〉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치매예방 및 치매 사후관리서비스

구분	부가서비스 주요 내용
메이지야스다생명	인지기능 감소 평가, 치매예방 앱, 대리청구 특약, 보험금 청구 방문 서비스, 간병 시설·기구 소개, 치매 상담, 성년후견인·가족신탁 전문 상담
스미토모생명	건강체크, 건강상담 전문 콜센터, 가족지원(가족등록, 계약자 대리제도, 피보험자 대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Vitality 프로그램 제공
다이이치생명	치매예방 App, 화상 인지기능 테스트, 뇌운동 프로그램, ALSOK사의 긴급 비상 방문서비스, 인지증 전문 전화상담, 지정대리인 청구, 진단서 신청대행 등임
SOMPO재팬히마와리생명	치매관련 정보제공, 인지기능 검사, 치매돌봄 서비스, 상담서비스
타이요생명	경도인지장애 검사, 건강 걷기 체험투어, 치매예방 앱, 치매관련시설 소개, 유료 양로원 소개

자료: 熊沢由弘(2019)를 기초로 수정·보완함

- 다이이치생명은 치매예방 App(QOlead사 제공), 뇌운동 프로그램(Besupura사 제공), 인지기능 테스트(Neurotrack사 제공), 긴급 비상 방문서비스(ALSOK사 제공), 인지증 전문 전화상담(保健同人社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생명보험회사가 간병사업자와 연계하여 간병보험상품에 부가형 간병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표 III-12>와 같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간병서비스 사업 초기단계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수요 확대 추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간병서비스는 보험회사의 관련 자회사나 간병서비스 공급 전문회사와 업무 제휴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표 III-12〉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제공 간병 부가서비스 종류

(단위: 개)

서비스 종류	간병상담 서비스	간병시설 등의 소개·이용 서비스	정보제공·조사 서비스	심리적 지원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우대권	세미나 참가 서비스	앱 제공
보험회사 수	17	13	9	8	5	3	5

자료: 松吉夏之介(2018)

6. 산·학 연계와 협업

- 일본은 정부의 민·관·산·학 연계를 통한 성장정책 추진과 금융노년학을 활용한 금융정책에 따라 <표 III-13>과 같이 활발한 협업·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표 III-13〉 일본 정부 Financial Gerontology(F·G) 정책 경과

발표 시기	주체	금융정책 주요 경과
2017. 11	금융청	『2017년 금융행정 방침』 F·G 주목할 필요성 제시
2018. 2	내각부	『고령사회 대책 대강』 F·G 필요성 명시
2019. 6	금융심의회	「고령사회 자산형성·관리 보고서」 금융회사에 F·G 권장 제안
2020. 8	금융심의회	「고객본위 업무운영의 진전을 위해 보고서」 F·G 활용 기대

가. 금융노년학(Financial Gerontology)⁴⁷⁾과 연계

- 일본 금융업계는 산·학 간 공동 연구와 협업을 통하여 금융노년학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및 상품·서비스 대응 체계를 추진하고 있음(〈표 III-14〉 참조)
 - 2009년 니혼생명 등 34개 기업이 참여하여 동경대학 고령사회총합연구기구(IOG: Institute of Gerontology), 2016년 'Financial Gerontology 연구센터(학회)', 2019년 '일본금융 Gerontology 협회'가 각각 설립됨
 - 미츠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은 문부과학성, 교토부립의과대학 등과 연계·협업하여 치매환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직원교육, 세미나 개최, '치매환자 응대 실무 가이드(2017)' 마련에 활용함

〈표 III-14〉 금융회사의 금융노년학 활용 현황

금융기관	학술기관	연도	연구주제	활용 분야
니혼생명 등 34개	동경대학	2009	IOG 설립	노년학 실무 적용
노무라홀딩스 등	게이오대학	2019	협회 설립	계몽, 지식산업, 자격시험 등
미츠이스미토모 신탁은행 등	교토부립의대 등	2017	치매환자 의사결정	연구 교과, 치매 대응 가이드
아오조라은행	상지대학	2019	노년학	연수 교과, 판매자료 개발 등
니혼생명	동경대학 IOG 등	2016	Gran Age Project 컨셉 개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니혼생명 등 6개 생명보험회사	금융노년학협회	2019	연수, 교재 개발, 사내 매뉴얼 반영	고령층 고객 응대를 위한 이해 활용

자료: 日本経済新聞(2019. 9. 17), “金融×大学、連携深める・高齢者向けサービス開発”를 기초로 작성함

- 생명보험업계도 고령자 신체·인지 기능 저하와 소비행동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음(〈표 III-14〉 참조)
 -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 Gerontology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고령자 경제활동, 자산선택 등에 관한 임직원 연수 및 교육 등을 수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7) 고령자의 경제활동, 자산선택 등 장수·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과제를 경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연구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연구하고 과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연구 영역임

회사 영업교육 교재 및 업무 매뉴얼 등에 반영·개정할 예정임

- 참여 회사는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 타이요생명, Metlife, 다이이치프런티어 등임

나. 기초의·과학과 공동연구

- 다이이치생명은 대학 등 기초의·과학연구소와 당뇨병 예측 모델 개발, 건강수명 연장, 입원 일수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표 III-15〉참조)⁴⁸⁾
 - 동 회사는 후지타보건위생대학, IBM과 공동으로 IBM Watson 기술을 활용한 2형 당뇨병 예측 모델 구축에 성공, 그 연구결과를 Nature지(2019. 8. 14)에 게재하고, 보험실무와 관련 서비스 활용을 추진 중임
 - 세부 활용내용은 고객의 당뇨병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선진형 리스크관리기준 정립에 의한 보험인수 확대, 신상품 개발 등임
 - 또한, 2019년부터 토호쿠대학, NTT DATA와 공동으로 보험의학 경험, AI·빅데이터 해석기술을 공유하여 건강수명 연장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히다치제작소와 공동으로 AI 기술과 의료빅데이터의 보험실무 활용 연구를 추진하고 '생활습관병에 기인한 입원 리스크·일수' 예측 모델(2017)을 개발함
 - 이를 통해 그동안 생활습관질환 등으로 가입 시 거절되었던 유병자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 효과가 있었음⁴⁹⁾
 - 질병 예방·중증화 예방,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추가 연구를 추진 중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질병 예방, 건강증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동 회사는 히로사키대학의 건강데이터, 히로시마대학 MiRTeL의 미병 검사와 연계하여 건강진단에서 질병리스크를 산출하는 '미병(질병 전 단계) 예방 모델(2019)'을 개발하고, 보험실무에 활용할 예정임⁵⁰⁾

48) 第一生命 Nesws Release(2017. 9. 22); 第一生命 Nesws Release(2019. 8. 27)

49) 추가로 월 평균 300건을 신규계약을 체결함; 第一生命 Nesws Release(2017. 8. 31)

- 세부 내용은 건강증진형보험 보험료 할인 근거, 계약자 질병 리스크 평가 서비스, 케어 서비스 제공, 보험모집인이 제공하는 질병 개선·질병 예방 정보제공 및 어드바이스용 ‘질병 예방 교육 툴’ 개발 등임
- 또한, 게이오대학 첨단생명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의료데이터와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임⁵¹⁾

〈표 III-15〉 보험회사의 기초과학분야 공동연구 추진 현황

금융기관	대학·기관	연도	연구주제	활용 분야
다이이치생명	후지타보건위생대학, IBM	2016	당뇨병 예측모델	고객 부가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
	히다치 등	2016	입원 예측모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토호쿠대학, NTT	2020	건강수명 연장	보험실무 개선
메이지야스다생명	히로사키대학, 히로시마대학 등	2018	미병 예측모델	질병 예방, 보험료 할인, 교재 개발 등
	게이오대학	2019	빅데이터 활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니혼생명	오사카시립대학병원	2017	빅데이터 활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순천당대학	2019	치매 조기발견	치매 예방, 지급심사 등
스미토모생명	리츠메이칸대학 등	2019	빅데이터 활용	건강증진 개선

자료: 각 회사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니혼생명은 오사카시립대학, 순천당대학 등과 건강수명 개선, 치매 예방 등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표 III-15) 참조)

- 동 사는 오사카시립대학병원과 2017년부터 의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건강 증진·건강수명 연장, 보험상품 개발·서비스 강화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9년부터 순천당대학(뇌신경 연구로 전문기관), IBM 등 6개 기관과 IBM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일상생활 중 대화·얼굴 표정으로 치매상태와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예측모델 연구를 추진하여 파킨슨병 등 신경성질환 예방, 치매 예방, 조기발견·진단·치

50) 明治安田生命 Nesws Release(2018. 12. 7)

51) 明治安田生命 Nesws Release(2019. 1. 11)

료, 악화 방지, 일상생활 유지, 지급심사 등에 활용할 예정임⁵²⁾

7. 한·일 비교

■ 일본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생명보험업계 역할 확대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표 III-16>과 같음

- 다만, 한·일 간 인구 고령화 정책과 공·사 역할 분담에 대한 관점 차이 등이 있으므로 일본의 대표적 사례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고령화 차이만큼 일본과 시차를 두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보험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 일본판 데이터3법(일본 2015~2017, 한국 2020), 치매 종합대책(2015, 2017) 각각 추진되고, 규제샌드박스(2018, 2019)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또한, 고령 소비자 보호 자율규정 마련(2014, 2017), 보험회사 건강증진컨설팅업 허용(2017, 2019), 보험회사의 시각화된 정보 제공(2019, 2020) 등을 허용함
- 다만, 일본은 보험회사의 보육시설 사업, 불임치료 보장, 건강경영제도, 익명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진입의 규제를 완화함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생명보험회사가 골수기증자 보장, 계약정보 및 약관 개선, 고령자 보호 강화, 자금계획 지원, 건강증진형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골수기증자보장은 일본에서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품개발이 미진하며, 건강증진형보험도 건강 개선 효과를 보험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로 일본은 발전함

■ 한·일 비교에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추진이 미진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52) 日本經濟新聞(2019. 7. 10), “順天堂大 認知症の早期発見・企業6社と共同研究”

- 보험금 기부 제도,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보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취학 전 아동 보육 사업, 학교 정규 교과서에 보험교육 내용 명시 등임
- 또한, 고령자 가족 대행 서비스, 직접지불제 서비스, 장수 장려 연금상품 개발, 의료데이터 활용, 경도인지장애 보장, 노년학 활용한 고령자 보호, 기초과학·4차 산업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산·학·관·연(産·學·官·研)과의 연계 추진 등임

〈표 III-16〉 한국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포용력 확대 사례 비교

분야	항목	일본	한국
사회 참여	기부 문화 촉진	- 수익자 기부단체 지정제도(2020) - 필수기증자보장 27개사가 무상 제공	- 미운영 - 필수기증자보장 1개사 제공
	일·육아 양립 지원	보육시설 우선 임대 및 연계 사업	미운영
	일·간병 양립 지원	종업원복지형 부모 간병보험 개발	미개발
소비자 보호	금융이해력개선	정부가 '정규 교과서에 민영보험 역할 분담 명시'(2018)	정부가 교사용 금융지도서 발간(2019)
	정보 제공	- 알기 쉬운 서면계약 정보 제공 자율 기준 마련(2016) - 금융청 시각화 정책 추진(2019)	- 보험약관 개선 추진(2019)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제공(2020)
	고령자 보호 선진화	보험회사 고령자 계약관리서비스 제공 및 브랜드화, 적극 홍보	보험약관 및 자율규정이 있으나 브랜드화 및 홍보 부족
고령자 맞춤지원	고령자 전문 서비스	니혼생명 유료 특화서비스(Gran Age Star) 제공(2019)	검토 중·미도입
		제3자 보험금 청구 시범 실시	검토 중
		소니생명 직접지불제 실시(2018)	미도입
노후관리	자금계획 설계 지원	민간주도형 노후설계	연금포털 등 공·사 협력형
	تون틴연금	니혼생명(2016) 등 5개사 개발	미개발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이 건강증진 컨설팅 사업에 활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추진(2018)	검토 중
	건강증진보험	개인형(9개사)·단체형(5개사) 판매	개인형(3개사) 판매
	치매보험 개발	중증·경증, 경도인지장애에 보장	중증·경증 보장
	치매예방·간병지원	다양한 유·무상 부가서비스 활성화	검토 중
산·학 협업·연계	금융노년학 활용	상품, 서비스 등 고령자 대응 매뉴얼 등에 연구결과 반영	검토 중
	기초의·과학과 연계	- 사업모형·효과 분석을 목적 - 산·학·관·연 활발한 연계	산업 간 협업

IV. 결론

- 일본 사례 조사 결과,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전통적 보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사회 참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용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사회 참여〉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직장·간병·육아 양립 지원, 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 문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각종 노부모 돌봄서비스가 부가된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보험상품 개발, 어린이 보육시설 우선 임대,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 도입, 골수기증자 의료비 보장상품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 사회 참여를 통해 포용력을 확대하고 있음

〈취약계층 보호〉

- 일본은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고령층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시각화를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재난발생 시 안부 확인 서비스, 고령 고객 전담 창구·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요를 촉진하고, 학교 정규 교과서에 근거한 보험교육 실시하여 인식 개선을 하고 있음

〈고령층 맞춤 지원〉

- 일본은 보험계약 기간 중 다양한 일상 생활의 불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맞춤형 유료 편의 서비스를 개발·브랜드화하여 홍보하고 있음

- 병원 및 간병시설 입주 시 가족을 대신한 입원·입주 서비스, 가족을 대신한 통원·퇴원 시 서비스, 재산관리 및 생활·요양 간호 등 지원 서비스, 사후 장례·유품 정리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
- 가입자의 장수리스크를 풀링할 수 있는 토티형 연금개발 확산, 보험회사가 계약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 사례가 확산되고, 제3자에 의한 보험금 청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건강관리 지원·질병 예방〉

- 일본은 정부의 건강수명 연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험과 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판매, 단체형 등 건강증진보험 활성화, 건강 개선 활동 시 캐시백·보험료 할인, 건강 지도 등을 제공함
 - 건강관리 및 간병서비스, 경도인지증장애 소액 보장,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치매 예측 서비스, 치매 예방 및 사후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임

〈연계·협업〉

- 일본은 건강관리 지원·질병 예방을 위해 혁신기술과 연계하거나, 고령 계약자 보호 및 편의를 위하여 노년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융·복합형 상품 개발을 위하여 혁신기술 기업들과 연계하고, 건강·질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하여 기초과학과 협업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노년학회와 연계하여 고령 친화적인 사내 교육교재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있음

〈시사점〉

- 일본 사례는 생명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자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고, 혁신기술 활용과 사회 참여를 통해 포용력 확대와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일본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⁵³⁾을 통하여 금융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보험업계가 동참했기 때문임
- 대표적 사례는 필수기증자보험 개발 규정 신설(2005), 직접지불제 및 현물급부 서비스와 보육사업 허용 법규 개정(2014), 건강증진 컨설팅업 허용(2017), 건강경영제도 도입(2017), 익명 고객 데이터 제3자에게 제공 허용 법 개정(2019) 등임
- 이를 통해 일본의 보험계약자는 현금급부나 다양한 방문·재택·시설입주 간병 서비스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고, 직접 지불제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불의 번거로움과 과잉 의료 불안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소개를 통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유·무상의 혁신기술 융합형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과 의료·건강 데이터 분석 기법에 의한 건강컨설팅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일본 보험회사 업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은 열거 업무가 아닐 경우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포용력 확대와 혁신 사업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론〉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도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본업의 보장성 강화를 충실히 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⁵⁴⁾ 보험산업이 3가지 원칙⁵⁵⁾하에 ‘생산적·포용적 금융’ 가치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53)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2016)과 차세대의료법(2017) 제정, 그레이존 해소제도(2014), 신사업특례제도(2014), 규제 샌드박스(2018) 시행,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추진(2018) 등임

5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5),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5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8. 17), “본연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 4차산업 등 활용 제고,

- 현재까지 포용금융의 국제기준은 2019년 후쿠오카 G20회의에서 합의한 ‘고령자와 금융포용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책’⁵⁶⁾이며, 일본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이를 근거로 금융정책과 포용적 사업모델 구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⁵⁷⁾
-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G20회의 합의를 참고하여 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 역할의 효율적 분담을 통한 업무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56)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의 활용, 디지털과 금융이해력 강화, 생애 금융계획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 대응, 포용적 혁신기술 활용, 고령자 경제적 확대와 사기 대응, 다양한 분야와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대응 등임; OECD and the G20 Japanese Presidency for the GPFI(2019)

57) 日本生命保險協會(2020)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19. 7),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_____ (2019. 1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_____ (2020. 8. 31),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 이상우(2019), 「일본의 기업성 부모 간병보험 개발 확대」, 『KIRI 고령화리뷰』, 제32호,
보험연구원
-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 청와대 브리핑(2018. 9. 6),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 石田満(2019), *保険業法*
- 日本老年学会・日本老年医学会(2017), *高齢者に関する定義検討 Working Group*, 報告書
- 日本生命保険協会(2020), “人生100年時代における生命保険業界の役割について”
- 経済産業省(2018), “2050年までの経済社会の構造変化と政策課題について”
- 経済産業省, 헬스케어IT研究会(2018. 4), “日本生命ヘル스케어事業のご紹介”
- 金融庁(2018. 7. 3), “高齢社会における金融サービスのあり方”
- 金融審議会(2019. 6), “市場Working Group 報告書(高齢社会における資産形成・管理)”
_____ (2012. 11), “保険商品・サービス提供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書”
- 金融審議会 金融制度スタディ・グループ(2018. 12), “生命保険業界における情報の利活用”
- 松吉夏之介(2018), “保険会社における介護事業の展開状況等について”, JA共済総合研
究所
- 内閣官房(2017), “人生100年時代構想会議 中間報告”
- 熊沢由弘(2020), “健康増進型保険の動向”, JA共済総合研究所
_____ (2019), “生命保障分野における 認知症保険の概要・特徴と開発の背景”, JA共済
総合研究所

Money&Investment(2017. 10. 29), “長寿の味方トンチン年金”

マネーポスト(2017. 10. 20), “トンチン保険”

日本生命(2019), “Annual Report”

SOMPOひまわり生命(2020), “Annual Report”

明治安田生命(2019), “Annual Report”

OECD and the G20 Japanese Presidency for the GPFI(2019), *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 2020-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 정세창·김대환 2020.9
- 2020-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한상용·문혜정 2020.10
- 2020-8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양승현·박정희 2020.12
- 2020-9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황현아·손민숙 2020.12
- 2020-10 사회적 신뢰와 보험 / 성영애·김민정 2020.12
- 2020-11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0.12
- 2020-12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20.12

20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김용하 2020.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
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점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2020-9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희·문혜정 2020.12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2020-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0
 2020-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유미 2020.11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혜란 2020.11
 2020-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11
 2020-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상품 및 채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이슈보고서 2020-1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퍼
